

‘보시기에 좋았더라’

2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2026 창조질서회복 캠페인’
디지털 디톡스, 건강한 식습관, 생태 회복, 바른 언어생활 등



온누리교회가 ‘2026 사순절 창조질서회복 캠페인’을 전개한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부제: 자기부인의 제자도)를 주제로 오는 2월 18일(재의 수요일)부터 4월 5일(부활주일)까지 이어진다.

창조질서회복 캠페인은 인간이 무분별하게 파괴해 온 창조질서를 바로잡고, 성도 개개인이 세상의 헛된 우상과 중독에서 벗어나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 제자의 삶을 회복하는 거룩한 여정이다.

창조질서회복 캠페인은 사순절 7주 동안 진행된다. 매주 다른 주제로 공통 실천사항과 요일별 실천사항을 행한다. 1주차(2/18~21) ‘디지털 디톡스: 내 손안의 우상을 내려놓다’를 주제로 스마트폰과 미디어 중독을 끊어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다. 스마트폰 불필요한 알림 끄기, 자기 전 종이 성경책 읽기 등을 실천한다.

2주차(2/23~28) ‘건강한 식습관: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주제로 자극적인 음식을 절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먹거리로 몸을 정화한다. 인스턴트 및 배달 음식 줄이기, 과식 피하기 등을 실천한다.

3주차(3/2~7) ‘생태 회복: 소유보다 나눔, 채움보다 비움’을 주제로 병드는 지구를 위해 편리함을 내려놓고 환경을 돌본다.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 사용하기, 자

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을 실천한다.

4주차(3/9~14) ‘바른 언어 생활: 죽이고 살리는 혀의 권세’를 주제로 비난과 험담, 판단을 멈추고 축복과 감사의 언어를 심는다. 남을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자리에 끼지 않기, 하루 5번 감사 고백하기 등을 실천한다.

5주차(3/16~21) ‘절제와 성실: 운이 아닌 은혜로 사는 삶’을 주제로 도박, 투기, 요행을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성실한 청지기 의 삶을 산다. 주식·코인 차트 확인 등 과도한 몰입 멈추기, 일터에서 경쟁보다 협력자 되기 등을 실천한다.

6주차(3/23~28) ‘겸손과 순종: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를 주제로 나의 직분과 소유 등을 내세우지 않고 이웃을 돌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낸다. 하나님 말씀과 권위자의 권면에 즉시 순종하기, 나를 위한 지출 줄여 이웃 구제금 마련하기 등을 실천한다.

7주차(3/30~4/5) ‘나를 따르라: 부활의 증인으로’를 주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기쁨을 묵상하며 참된 제자의 삶을 회복한다.

문의: 02-3215-3434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차세대 파워웨이브 연합수련회 ‘PASSION 2026’ 막 내려

1차와 2차 파워웨이브 소속
학생 및 교사 2,537명 참석

차세대 파워웨이브 연합수련회 ‘PASSION 2026’ (이하 패션집회)이 막을 내렸다. ‘Unshakable’을 주제로 열린 이번 패션집회에는 국내 온누리교회와 M센터 소속 파워웨이브, 몽골 현지 학생, 파워웨이브 교사, 봉사자 등 2,537명이 참가했다.

패션집회는 개회예배, 저녁집회, 파워패스티벌, 주제 강의, 선택 강의, 폐회예배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김선재 목사(차세대사역본부장), 송바울 전도사(한티사역), 이훈형 대표이사(와우산레코드), 박위 형제(유튜브 위라클 채널 운영)가 강의했다. 선택강의는 강동민 센터장(온누리청소년센터), 강하선 디자이너, 고대곤 교수, 김지연 약사, 오경숙 본부장(창조과학회), 래퍼 지푸 등이 했다.

이수아 학생(서빙고 파워웨이브, 중3)은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가장 편안한 친구로 소개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다짐했다.

온누리교회 ‘공동체성경읽기 앱’ 출시

공동체성경읽기 앱 ‘온누리 성경읽기’를 출시했다. 성도들이 온누리교회 성경읽기표에 맞춰 매일 말씀을 묵상하도록 돕는 영상을 제공한다. 앱 사용자는 통독캘린더를 통해 진도를 점검할 수 있고, 알림 기능을 설정하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 읽기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온누리교회는 지난 1월 31일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예배에서 ‘공동체성경읽기’를 하고 있다. 초대교회의 성경 낭독 전통을 회복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월 비전현금, 수원기독호스피스센터 후원

2월 7일(토)과 8일(일) 봉헌하는 2월 비전현금은 ‘수원기독호스피스센터’ 건립을 후원하는 데 사용한다.

수원기독호스피스는 1996년 12월 창립된 호스피스 봉사 기관이다. 수원 지역 목회자와 성도들이 말기 질환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한 봉사와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했다. 2005년 6월 1일에는 의료법인 하나의료재단을 설립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 기관 수원기독의원을 개원했다. 현재 새로운 센터 건립을 준비 중이다.

온누리M미션, ‘이주민 설 집회’ 개최

2월 14~21일 언어권별 예배와 교제 나눠

온누리M미션이 ‘2026 이주민 설 집회’를 개최한다. 2월 14일(토)부터 21일(토)까지 각 지역 M센터에서 진행된다. 라오스, 몽골, 네팔,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아랍, 러시아, 필리핀 등지에서 온 이주민 600여 명이 참가한다. 언어권별로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한다.

안산M센터는 네팔 2월 14~15일 대부분도 펜션, 베트남 2월 16~18일 안산M센터, 열방 YER 2월 15~16일 안산M센터, 태국 2월 16~17일 안산M센터, 우즈베크 2월 15일 안산M센

터, 필리핀 2월 15~16일 안산M센터에서 이주민 설 집회를 한다.

군산M센터는 열방, 라오스 2월 17~18일 전주 한옥마을, 김포M센터 차세대는 2월 14일 김포M센터에서 이주민 설 집회를 한다. 남양주M센터는 2월 14~15일 네팔, 14일 인도, 15일 캄보디아, 17일 방글라데시 공동체 예배를 드린다.

서빙고온누리교회 네팔어예배는 2월 17일 군포 웰터, 아랍어예배 2월 25일 충남에서 이

주민 설 집회를 한다.

안다옥인도네시아교회는 2월 16일 안산M센터에서 연합 집회를 한다. 인천온누리교회 이주민 차세대, 아프간 청소년은 2월 21일 서울랜드에서 SNS청년부와 아웃팅을 함께할 예정이다.

화성M센터 캄보디아 2월 17일 서울 투어, 네팔 2월 16일 안산M센터 연합 집회에 참석한다. 각 센터별 몽골어예배는 2월 14~16일 팀수양관에서 연합집회를 한다.

문의: 02-3215-3730

/ 홍하영 기자



나를 따르라

Follow Me! Deny yourself and take up the cross (Mt 16:24)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야고보의 동생,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갈릴리의 어부였던 세베대의 아들인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부유한 미래를 포기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1·2·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원숙한 묵회자요, 신학자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증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다른 시각으로 기록했습니다. 신학자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같은 관점에서 기록했다고 해서 '공관복음(共觀福音)'이라고 부릅니다. 공관복음서들은 주로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유대와 예루살렘 중심이며,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최후 일주일의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짧은 비유들을 중심으로 기록했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긴 설교, '강화'라고도 부르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공관복음서에는 기적 그 자체를 기록했지만, <요한복음>은 기적의 의미를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역사적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에 집중했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밝히는 데 집중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독자적인 기록들이 나옵니다. 요한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은 체험을 한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환상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계 1:9).

요한이 격렬한 성격에서 변화되어서 영적으로 깊이 있는 증언과 기록을 남기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환난과 인내하는 성숙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요한

은 그 이름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성경 곳곳에 쓴 글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은 여러 곳에서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하고, <요한복음> 13장과 21장에서는 '예수께 기대어 있던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있었던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분의 품에 기대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요한의 이때 나이를 10대 중후반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어렸습니니다. 요한은 천진난만해서 예수님 품에 기대고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였습니다. 가장 나이 어린 제자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 동생입니다. 친척 관계이기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하셨을 때, 모든 제자가 입 다물고 있었지만, 요한은 "주님을 배반할 사람이 누구입니까?"라고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신성과 영광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습니다. 요한은 직접 경험한 것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매우 상세하게 예수님 최후의 행적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 과정, 십자가 처형 장면, 십자가 위에서 주신 말씀들, 베드로의 배신과 그 회복의 여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현장에 요한이 있었습니다. 남자 제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요한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야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어머니와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아라. 네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25~27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처형을 당한 장면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한 여성 제자는 네 명이었고, 남자 제자는 한 명이었습니다. 끔찍한 십자가 처형 장면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십자가와의 물리적인 거리가 곧 예수님의 사랑의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요한: 사랑의 머무름

요한복음 19:25-27, 요한계시록 1:9

“예수님의 음성과 임재를 사랑하면 그분 앞에 머물러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전하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멀찍이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위험이 닥쳐올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끝까지 지킨 사람은 군병들과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소수 제자, 다섯 명입니다. 요한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23절과 24절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나눠 가질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찢어져 떨어졌을 때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이 십자가로 더 가까이 다가갔을 거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을 때 흘리는 피와 지친 몸 때문에 멀리 보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가까이 다가왔을 때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당신의 아들이라는 건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이 말씀은 이제 요한에게는 네 어머니로서 마리아를 모셔달라는 요청과 명령이고, 마리아에게는 이제 나 대신 요한이 모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제 저와 어머니의 관계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요한이 당신의 아들로서 당신을 모실 것입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에베소에 가보면 지금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요한은 열두 사도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요한은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이고, 예수님이 당신의 어머니를 위탁할 정도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하나님 사랑에 관한 증언을 합니다. 특히 <요한일서> 4장에 사랑에 대한 위대한 말씀을 남깁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제물로 보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요일 4:10~12).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독생자를 화제물로 주셔서 우리를 사랑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요한의 서신들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강조하며 사랑에 사로잡힌 사도가 되었습니다.

‘제롬’이라는 분에 의해서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베소에 노쇠할 때까지 머물렀던 요한이 거동하기가 어려워 제자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예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많은 말을 할 기력이 없기도 했지만, 모일 때마다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그가 늘 같은 설교를 하는 것에 따분함을 느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왜 항상 같은 말씀 하십니까?”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며, 또한 서로 사랑하는 일만 제대로 행한다면 더는 필요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외에는 모든 것을 잊은 사람처럼 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행할 수 있는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붙잡고 죽기까지 충성한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다시 받을 때 요한에 대해서 묻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와 늘 같이 있었던 제자가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머무름’은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요한은 사랑에 머무는 제자였습니다. 형 야고보는 순교의 우렛소리가 되었지만, 동생 요한은 사랑의 우렛소리가 되었습니다. 안드레와 함께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른 제자였고, 가장 오래 예수님을 따른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였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 앞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과 임재를 사랑하면, 그분 앞에 머물러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전하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주의 사랑 안에 머무십시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What Would You Say?)

자본주의는 그저 탐욕에 관한 것일까?

어떤 대화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 보라.

“자본주의는 탐욕에 보상을 주는 체제다.”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는가? 많은 사람이 시장경제의 사업가들을 떠올릴 때, 영화 속 인물들을 연상한다. 예컨대 ‘크리스마스 캐럴’의 에비니저 스크루지, ‘메리 포핀스’에 나오는 은행가들, 혹은 ‘월 스트리트’의 고든 게코 같은 인물들이다. 이 고정관념은 사업과 자본주의가 가난한 사람들을 희생시켜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게 만드는 이미지를 강화한다. 단순히 어떤 사람들이 탐욕스럽다는 생각을 넘어서 탐욕이 자본주의의 본질이라는 생각까지 강화한다. 만일 자본주의가 정말로 탐욕에 관한 것이라면, 탐욕을 죄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고정관념은 현실이 아니다. 자본주의는 탐욕에 관한 체제가 아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를 책임지는 것은 이기심과 다르다. 스코틀랜드의 도덕철학자 애덤 스미스는 사업에서 ‘자신의 유익(self-interest)’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말했다.

“우리가 저녁을 기대하는 것은 정육점 주인

이나 양조업자나 제빵사의 자비심에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이익을 돌보기 때문이다.”

스미스는 이기심을 옹호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요점은 정육점 주인이 고객인 당신을 사랑하거나, 세계 평화를 상상하지 않아도 섬길 수 있다는 데 있다. 그가 자기 월세를 내거나 딸의 치아 교정기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는 동기만으로도 그의 사업은 움직인다. 그 일에 대한 책임이 있기에 당연히 염려한다. 이것은 자기의 유익이지, 이기심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한 목수는 아내에게 줄 기념일 선물을 사거나, 가족의 건강보험료를 내기 위해 일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 체제에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는 자기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

둘째, 자본주의는 이타성을 장려한다. 그 목수가 성공하려면 고객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의 행동과 방향성은 고객을 향해 있다. 그의 일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사업은 이타적이다. 이타성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물론 모든 직업과 모든 사업 영역에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있다. 사회주의 체제에도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있다. 종종 권력을 쥔 사람들이 그러하다. 문제는 탐욕스러

운 사람이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시장경제에서 사업과 서비스가 본질적으로 탐욕에 의해 움직이는가 하는 것이다. 그 답은 “아니다”이다.

일상에서 만나는 실제 사업들을 생각해 보라. 식료품점, 이발사, 치과, 좋아하는 식당이 나 옷 가게를 떠올려 보라. 고기, 채소, 양말, 티셔츠를 어디서 살지 선택할 수 있다. 사람들이 선택하는 가게들은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을 낼 의사가 있는 가격에 제공한다. 시장경제에서 기업은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정당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 탐욕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한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기업들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향하도록 강제한다.

셋째, 자본주의는 덕을 길러 주며, 심지어 나쁜 동기조차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행동으로 이끌 수 있다. 시장경제에서 성공하려면 많은 덕이 필요하다. 기업가는 자신의 부를 모두 소비하지 않고 저축하기 위해 인내와 절제가 필요하다. 그것을 쌓아 두기만 하지 않고 투자하기 위해 용기도 필요하다. 기업가는 자기중심적이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예상해야 한다. 근면과 절제된 선택을 통해 사람들을 섬기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원들을 새롭게 결합하고, 창조하는 방법을 발견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이웃, 동업자, 사회, 직원들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업도 성공할 수 없다. 시장경제에서 번영하려면 인내, 용기, 근면, 창의성, 신뢰를 실천해야 한다. 자신의 이익이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낼 의사가 있는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충족하는 체제에서는 이타적인 감정이 없더라도 이타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물론 하나님은 결과만이 아니라 동기도 보신다. 그러나 깨어진 세상에서 일상의 필요를 사람들의 선의와 자선심에만 맡길 수는 없다. 선하든 악하든, 이타적이든 탐욕적이든, 우리의 동기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이끄는 체제가 더 낫다. 그러므로 누군가 자본주의가 탐욕에 관한 것이라고 말할 때,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라.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를 책임지는 것은 이기심과 다르다.”

“자본주의는 이타성을 장려한다.”

“자본주의는 덕을 길러 주며, 심지어 나쁜 동기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행동으로 이끌 수 있다.”



원문 영상 QR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구별

좌파 세계관은 왜 매력적으로 보일까?



이인용 장로
(중종로공동체,
온누리신문 편집국장)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면서 그렇게 배타적인가요?”, “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나요?”

다음에는 이런 비유가 이어집니다.

“나는 서쪽 등반로를 택해 갈 테니, 당신은 동쪽 등반로로 올라오세요. 우리 정상(구원)에서 만나면 되지 않나요?”

이 말은 서로 다른 선택을 존중하는 포용의 언어로 들립니다. 세련된 지성의 언어로 여겨 집니다. 이 언어의 뿌리에는 인본주의적 사고가 놓여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또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옳습니다.”

이 말은 듣는 사람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동시에 말하는 사람에게는 도덕적 만족감을 줍니다. 나는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 포용적인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요?”

이 질문은 현대 사회의 강력한 한 세계관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좌파 세계관’입니다. 개인의 선택이나 책임보다 구조와 제도의 문제를 먼저 묻는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은 우리가 힘든 이유가 우리 자신에게 있기 보다는 세상의 시스템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구조와 제도를 바꾸면, 고통도 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계관은 실제로 큰 설득력을 갖습니다. 냉혹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따뜻한 세상’이라는 비전은 고단한 삶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관은 자책감을 덜어주고 대신 분노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자기 성찰 대신 투쟁 의지를 북돋웁니다. 분노는 각성이 되고 정의가 됩니다. 분노하는 나는 정의롭고, 분노의 대상은 악입니다. 따라서 분노의 대상을 무너뜨리는 것이 역사의 진보가 됩니다. 이 세계관은 내가 역사의 주인이라는 자긍심을 심어 주고, 나아가 역사의 진보 편에 섰다는 도덕적인 확신까지 줍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개개인의 성찰과 회개가 필요 없습니다. 자기 부인은 더 더욱 요구되지 않습니다. 나한테는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관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40년 전 소련의 붕괴는 좌파가 만든 정치체제의 실패를 드러냈지만, 좌파 세계관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좌파 세계관은 ‘당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속삭임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 미혹에 넘어간 인간의 죄성을 속주로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반면,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당신은 존엄하지만, 늘 옳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인본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 세계관은 인간을 불편하게 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남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거듭남의 기쁨과 감격을 알지만, 세상은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이 기독교 세계관을 불편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사랑입니다. 이 크신 사랑이 배타적으로 들리는 이유가 무엇 일까요? 진리의 속성은 본질적으로 구별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구별합니다.

그러나 이 구별은 사람을 배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는 믿음은 다른 사람을 배제하려는 선언이 아니라, 인간

이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만들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여러 사상과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좌파 세계관이 기독교를 불편해하는 것은 인간이 진리의 자리에 앉고 싶은데, 거기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좌파 세계관이 구축한 정치체제인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적대하며 말살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좌파 세계관이 다 공산주의는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좌파 세계관에 기초한 정치체제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뿌리에 있는 인간관은 케를 같이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구조와 제도를 완벽하게 설계하면 고통과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고통의 근원을 구조가 아닌 인간 내면의 죄성과 타락에서 찾습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할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는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의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시도와 다름 없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돌아봅시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지지 않게 하자”(창 11:4b).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 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인간 스스로 신이 되려는 길은 결국 파멸로 향한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고요한 순종의 초대, 십자가의 길 위에서 만나다!

엘 그레코(EI Greco)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
가브리엘 포레(Gabriel Faure)의 ‘Pie Jesu(자비로운 예수)’



최정주 권사
(아트앤뮤직 큐레이터,
이수공동체)

온누리교회 올해 표어가 ‘나를 따르라’(마 16:24)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을 조용히 돌이키게 하는 엄숙한 초대다. 믿음이 머리로만 남아 있으면 삶은 어느새

익숙한 자리로 돌아가곤 하지만, ‘따름’이라는 실천적 고백은 발걸음의 방향을 다시 잡게 한다. 예수님이 앞서 가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르는 질서, 곧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 조금씩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하늘을 향한다

올해 표어를 묵상할수록 한 점의 성화가 더욱 또렷하게 마음에 들어온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The Met) 로버트 레먼 컬렉션에 소장된 엘 그레코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이 작품을 16세기 말 스페인에서 제작된 유화로 소개하고, 소장 표기를 로버트 레먼 컬렉션(1975)으로 기록해 두었다. 소장처를 굳이 밝히는 이유가 있다. 이 그림이 오늘날 세계 곳곳의 성도들과 관람자들에게 묵상의 창으로 열려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그림은 단지 멀리 있는 명화가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 가까이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거는 성화다.

엘 그레코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는 ‘수난의 사건’이라기보다 수난을 받아들이는 내면의 순간을 길게 붙잡아 둔 장면처럼 보인다. 화면은 의외로 단출하다. 군중도, 골고다의 풍경도, 소란스러운 서사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상반신과 십자가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 앞에 놓인다. 이 ‘가까움’이 주는 울림이 크다. 그래서 우리는 멀찍이 구경하듯 바라볼 수 없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을 단지 감상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품는 예수님의 표정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깨에 그저 걸친 정도가 아니라, 두 팔로 끌어안듯 간절히 붙들고 계신다. 손가락은 나무의 결을 움켜쥐고 있으며, 그 거친 결이 손바닥에 닿는 감각까지도 상상하게 만든다. 대부분 성화에서 십자가는 짐처럼 ‘밀고 끌며’ 전진하는 고통의 도구로 그려지기도 하지만, 엘 그레코의 십자가는 이상하게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와 있는 대상처럼



엘 그레코(EI Greco)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 1580,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보인다. 마치 ‘이 길이 내게 주어진 길’이라고 고요히 받아들이신 분의 자세와 같다. 역울함을 과장하거나 영웅처럼 자신을 드러내려는 기색은 없다. 오히려 묵묵히 받아들이는 그 품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기도 하고, 동시에 숙연하게 만들기도 한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얼굴이다. 고통의 흔적이 분명히 느껴지지만, 그 감정이 격하게 분출되지는 않는다. 눈은 위로 들어 올려져 있다. 그 시선은 도피가 아니라, 아버지께 마음을 맞추는 정렬처럼 보인다.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는 일, 그 작은 움직임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웅변한다. 어떻게 일렁이는 배경은 폭풍을 예고하지만, 얼굴에는 묘한 빛이 머문다. 피부 톤과 옷의 색채가 만드는 대비(흔히 붉은 옷과 푸른 겹옷이 전하는 왕권과 신성의 느낌)는 “지금 당하는 수치가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조용한 선언처럼 다가온다. 머리의 가시 면류관은 폭력의 흔적이면서 동시에 ‘왕관’의 역설을 더욱 또렷하게 보여 준다. 고난과 영광이 분리되지 않고 한 자리에서 겹쳐지는 순간이 바로 여기다. 입술은 거의 닫혀 있고, 눈가에는 눈물보다 기도의 긴장이 남아 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비극의 클로즈업이라기보다 순종의 클로즈업이 된다.

또 하나, 엘 그레코 특유의 형태감이 이 장면을 ‘땅의 사건’에서 ‘영의 사건’으로 들어 올린다. 약간 길게 늘어진 얼굴과 손, 몸의 리듬은 사실 그대로를 옮기는 재현이라기보다 영적 긴장을 시각화한 표현처럼 느껴진다. 그는 ‘십자가는 무겁다’는 사실을 몸의 비틀림으로만 말하지 않고, ‘십자가는 하늘을 향한다’는 진리를 시선과 형상의 상승감으로 말한다. 그

래서 이 그림을 바라보고 있으면 십자가를 지는 일이 단지 ‘견디기’가 아니라 방향을 잃지 않는 ‘결단’임을 깨닫게 된다. 고난이 사라지지 않지만, 그 고난의 자리가 하늘로 이어지는 길이 되는 것이다.

엘 그레코(1541~1612, El Greco)는 그리스 크레타에서 출발해 이탈리아를 거쳐 스페인 톨레도에서 자기만의 언어를 완성한 화가다. 그는 흔히 마니에리시모(매너리즘) 흐름과 연결해 이해되는데, 이는 르네상스의 안정된 균형과 자연스러운 비례를 그대로 따르기보다 의도적으로 비례를 늘리고 형태를 비틀면서 화면에 긴장과 초월감을 불어넣는 경향을 말한다. 엘 그레코의 길게 늘어진 인체, 비현실적으로 솟구치는 리듬, 강렬하게 대비되는 색과 빛은 바로 매너리즘적 감각 위에서 ‘영적인 것’을 시각화하려는 선택으로 읽힌다. 동방의 성상화 전통과 르네상스의 색채 및 인체 이해, 그리고 스페인 가톨릭 영성의 깊은 기도 분위기가 그의 화면 안에서 한데 어우러진다. 그래서 엘 그레코의 그림은 늘 ‘현실을 묘사한다’기보다 ‘현실 너머의 신비를 가리킨다’는 느낌을 준다. 그가 구축한 빛과 색, 그리고 약간 비현실적인 형태는 이렇게 속삭이는 듯하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십자가는 땅의 패배가 아니라 하늘의 문법이다.”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 연결된다. 예수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고난을 피하고 싶다’는 제자들의 본능을 아시고, 제자도의 길을 십자가로 분명히 가르치셨다. 엘 그레코는 그 가르침을 큰 소리의 설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얼굴과 손으로 번역해 보여 준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지 삶이 힘들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느라 사람의 일을 내려놓는 일이다. 내 자아의 주권을 내려놓고 예수가 가시는 방향을 따라가는 일이다. 그 선택은 종종 요란하지 않다. 오히려 이 그림처럼 고요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결단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루어진다.

은혜를 의지하는 ‘십자가’

이 그림과 함께 포레의 레퀴엠 중 ‘Pie Jesu(자비로운 예수)’를 들어보기를 권한다.

“십자가의 길은 공포로 끝나지 않고 자비와 안식으로 열린다.”

포레의 레퀴엠은 웅장한 심판의 장면보다 상실을 품는 기도의 호흡을 더 오래 들려준다. ‘Pie Jesu’는 그 중심에 있는 짧은 기도다.

“자비로우신 예수여,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

을 주소서.”

소프라노의 선율은 기술을 뽐내기보다 인간이 더는 말을 만들 수 없을 때 남는 순수한 청원으로 울린다. 이 단순함이 엘 그레코의 단순한 구도와 닮았다. 군중을 지운 자리, ‘나와 주님’만 남는 자리에서 그림은 위를 바라보게 하고, 음악은 위로 기도하게 한다.

곡 자체도 ‘십자가의 신학’과 맞닿아 있다. 멜로디는 큰 도약으로 비명을 만들지 않고, 작은 호흡으로 마음을 들어 올린다. 슬픔은 분명하지만, 절망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애통이 곧 바로 신앙의 언어(자비, 안식)로 번역된다. 이 점에서 ‘Pie Jesu’는 십자가를 ‘견뎌내는 의지’로만 이해하려는 마음에 균형을 준다. 십자가는 의지를 과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를 의지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일깨우기 때문이다.

가브리엘 포레(1845~1924)는 오르가니스트로 교회음악의 현장에 오래 몸담았던 작곡가다. 그의 레퀴엠은 ‘죽음의 두려움’을 크게 키우기보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더 분명히 들려준다. 그래서 이 음악은 장례의 음악이면서도 동시에 삶의 음악이 된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결국 생명을 향한 길이라는 사실, 즉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라는 복음의 역설을 조용히 증언한다.

온누리교회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이 시점에, 엘 그레코의 그림과 포레의 음악은 같은 질문을 조용히 던진다. 나는 십자가를 피해야 할 불운으로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를 따르는 길에서 만나게 되는 거룩한 방향 표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자기 십자가는 스스로 고른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했기에 따라오는 무게일 때가 많다. 그 무게가 사람의 시선과 손익계산에 흔들리더라도, 그리스도처럼 시선을 위로 들 수 있을 때 제자도는 삶 속에서 자라난다.

이 그림과 음악이 남기는 신앙의 문장은 참 단순하다. 십자가를 지는 길에서 결국 ‘자비로우신 예수’께 말을 걸게 된다. 그분을 붙들 때 십자가는 우리를 부수는 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빛나는 도구가 된다. 엘 그레코의 고요한 눈빛과 포레의 낮은 기도가 한 자리에서 만날 때,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부담의 구호가 아니라 은혜의 초대가 된다. 그 초대 끝에 ‘Pie Jesu’가 반복해 속삭이는 약속이 있다. 영원한 안식, 곧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생명이다. 이 길이 곧 제자의 길이다. 그 길은 오늘날도 조용히 열려 있다. 새해에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걷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도한다.



음악 QR

일대일제자양육 ‘새로운 40년’ 비전 선포!

일대일 리더십 워크숍 ... 13개 캠퍼스 리더십 100여 명 참석

온누리교회 일대일제자양육팀이 온세대와 열방을 아우르는 ‘새로운 40년’ 비전을 선포했다. 지난 1월 24일(토) 온누리청소년센터 대강당에서 ‘일대일제자양육 리더십 워크숍’ (이하 일대일 리더십 워크숍)이 있었다.

이기훈 목사(일대일제자양육 담당), 김광하 장로(일대일통합사역팀 대표 장로) 등 국내 온누리교회 13개 캠퍼스 일대일제자양육팀 소속 리더십 100여 명이 참석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지난 1월 24일에 열린 '일대일제자양육 리더십 워크숍'.

간증

“유일한 대안, 제자 세우기!”

40년 전, 불과 127명으로 시작한 온누리교회와 일대일제자양육이 거목으로 자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일대일은 성인 일대일에 이어 어린이 일대일이 정착하였고, 전국 교회와 해외 교회에도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을 붙들고 달려왔다. 새로운 40년을 바라보는 지금, 다시 한번 일대일제자양육의 본질을 생각한다.

세상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학교와 학원 교육에 지쳐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일대일제자양육은 그들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가족과 떨어져 외롭게 지

내는 어르신들에게 일대일제자양육자의 따뜻한 섬김은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리라 확신한다.

우리의 시선은 이제 교회 담장을 넘어서야 한다.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 한국을 찾은 수많은 이주민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삶으로 성취해야 한다.

온누리교회 일대일제자양육은 멈추지 않는다. 한국 교회를 섬기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한 영혼을 제자로 세우는 거룩한 행진을 계속할 것이다.

/ 김광하 장로(노원공동체, 일대일통합사역팀 대표 장로)

선교적 리더십의 길을 묻다!

통합선교 리더십 프로그램(IML-KOREA)

옥스퍼드선교연구센터(OCMS)가 주최하고, 온누리교회와 한국해외선교회(GMF)가 협력하는 ‘통합선교 리더십 프로그램(IML-KOREA)’이 2월 12일(목)까지 이어진다. 한국 교회 담임목회자와 선교 단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선교적 리더십 개발 과정’이다.

지난 2월 2일(월)부터 5일(목)까지

마임 비전빌리지에서 ‘통합선교 리더십 프로그램 기본과정’이 진행됐다. 한국 교회 담임목회자 및 선교 단체 대표 23명이 참석했다.

오는 2월 9일(월)부터 12일(목)까지는 마임 비전빌리지에서 ‘통합선교 리더십 프로그램 심화과정’을 개최한다.

문의: 02-795-9085

열린울타리, ‘보육원 아동 결연 가정’ 모집

공동체 순예배 참석, 일대일제자양육 동반자 과정 수료자 대상

사회선교본부 온누리울타리 소속 열린울타리에서 ‘보육원 아동 결연 가정’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공동체 순예배 참석, 일대일제자양육 동반자 과정 수료, QT 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다. 하단 QR코드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신규 보육원 아동 결연 가정은 열

린울타리 정기예배 2회 이상 참석, 사역신청서 제출, 결연 가정 오리엔테이션 수료, 인터뷰 등의 과정을 거쳐 선발한다. 부부 모두 신앙을 가진 성도여야 하고, 싱글 가정도 지원할 수 있다. 문의:

010-6479-0885

/ 홍하영 기자



NGO 더멋진세상, 스리랑카 수해 피해 1,185가정 긴급구호

NGO 더멋진세상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스리랑카 수해 피해 지역에서 후원금 총 337.5만 원으로 1,185가정, 4,639명에게 식료품과 생필품, 의약품, 학용품 등을 지원했다. 두란노국제선교회(TI

M)와 현지 선교사 3인(윤희원, 한세일, 이현주)이 협력했다.

김광동 대표(NGO 더멋진세상)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회복과 소망의 길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홍하영 기자

2월 화요성령집회 ‘House of Prayer’

2월 화요성령집회가 ‘House of Prayer’를 주제로 막 오른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2월 화요성령집회에서는 10일 이서진 목사 ‘마음을 쏟아 기도하라’ (삼상 1:9-18), 17일 최대홍 목사 ‘씨름하며 기도하라’ (창 32:22-32), 24일 최성민 목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행 12:5-17)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경배와찬양 큰잔치 ‘복음에 합당한 삶’

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 설립 40주년을 맞아 뜻깊은 예배의 자리를 마련한다. ‘마흔 번째 해맞이 경배와찬양 큰잔치’가 2월 12일(목) 오후 7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이번 집회 주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 (빌 1:27, 29)이다. 하스데반 선교사와 경배와찬양 국제사역팀이 예배를 인도한다. 집회 실황은 국내온누리교회 캠퍼스 및 해외 비전교회에서도 생중계한다.

사역장로회 총회 개최

목회자 및 사역장로 110여 명 참석

사역장로회 총회가 지난 2월 3일(화) 오전 10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있었다. 이재훈 위임목사, 박종길 목사, 이기원 목사, 김석인 장로, 김선래 장로 등 목회자 및 사역장로 110여 명이 참석했다.

사역장로회 총회는 1부 예배, 2부 총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1부 예배에서는 유재홍 장로 찬양, 김석인 장로 대표기도, 허광수 장로 특송, 박종길 목사 말씀선포 및 축도, 이기원 목사 중보기도를 했다.

이날 박종길 목사는 ‘내게 주신 땅’ (수 18:1-3)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박 목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장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부 총회에서는 장광 장로 사회, 백승웅 장로 개회 선언, 박봉래 장로 25년도 사업보고, 허광수 장로 25년도 회계 보고, 유의준 장로 25년도 감사 보고, 김선래 장로 신임 회장 선출 경과 보고, 김석인 장로 인사, 이동희 장로 26년도 주요 사업 추진 계획 보고, 유재홍 장로, 박미진 집사 특송 등을 했다.

김석인 장로(사역장로회 신임회장)는 “잘 이끌기보다 잘 듣고, 앞서기보다 함께 걸으며 하나님과 사역장로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겠다”고 약속했다.

/ 박지혜 기자

허브대학부, 매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2월 기도회, 2월 28일 오후 7시 양재 기쁨홀

허브대학부 소속 청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자발적인 기도회를 매월 개최하고 있다. 지난달 24일(토) 오후 7시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열린 ‘허브대학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에 청년 163명이 참석했다. 2024년 말 청년 10여 명이 시작한 이 모임은 불과 1년여 만에 대학부의 중요 기도회가 되었다. 막연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모든 문화영역에서 구체적인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

지난 1월 기도회 주제는 ‘생명의 리’였다. 허브대학부 의대생 기도모임인 ‘허닥’ 소속 형제들이 직접 기획하고, ‘Life Guard(라이프 가드)’를 주제로 발표했다. 만삭 낙태의 실질적인 문제와 태아 생명권, 낙태 관련 법적 공백 문제, 미프진 등 약물 낙태 위험성과 합병증 등을 다뤘다. ‘허브대학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는 매월 이어진다. 2월 기도회는 2월 28일(토) 오후 7시 양재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세상의 문화’를 주제로 열린다.

온누리복지재단, 박현규 장로에게 ‘명예 파트너패’ 증정

온누리복지재단이 지난달 29일(목) 박현규 장로(경기A공동체)에게 ‘명예 파트너패(Honorary Partner)’를 증정했다. 박현규 장로는 온누리복지재단의 ‘온소미(溫笑美)’ 장학사업에 정기적으로 거액을 후원해 왔다.



이재훈 위임목사는 “박현규 장로님의 귀한 나눔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박현규 장로는 “제도권 밖의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이 안타까웠는데, 온누리복지재단의 온소미 장학사업을 통해서 도울 수 있어 감사하다”고 고백했다.

후원 문의: 02-3215-3413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QR코드를 찍으면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28년, 최장수 순장의 간증



2026 40th 마흔 번째 해맞이 경배와찬양 큰잔치

복음에 합당한 삶 (빌 1:27, 29)

일시: 2026년 2월 12일(목) 19:00

18:30분부터 기도 모임으로 시작합니다.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양재 온누리교회 본당 및 온누리교회 국내외 비전교회 본당

마흔 번째 해맞이 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 큰잔치는
하스데반 선교사와 경배와찬양 국제사역팀이 인도합니다.

문의처: 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

한국: Tel +82 (0)2 796 9700 / 독일: Tel +49 (0)179 5705756

Homepage: allenationen.org / email: 7000school@gmail.com

경배와찬양

경배와찬양 (ANM : ALL NATIONS WORSHIP&PRAISE MINISTRIES)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경배와찬양의 국제명칭입니다. 경배와찬양은 시편 146편, 67편, 그리고 이사야 61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4가지 사역, 1) 예배의 회복 2) 영적 자유와 치유 3) 전도와 만국선교 4) 구제와 긍휼사역을 21세기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7000 모임 (7000 Gathering)은 영감예술 시대에 천상의 예배를 드리면서 “재현신”을 하기 위한 경배와찬양의 시대적인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학개 2장, 열왕기상 19장 및 빌립보서 3장을 통하여 ‘침지기의 삶’과 ‘고난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은 7000 침지기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